

일본의 FTA정책과 경제적 효과*

Japan's FTA Policy and Economic Effect of FTA

김정욱(Jung-Uk Kim)

수산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경제학박사)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일본의 FTA정책과 진행상황 | 참고문헌 |
| III. 일본의 FTA전략 | Abstract |
| IV. FTA의 경제적 효과 | |

Abstract

This study extensively investigated Japan's FTA strategy and plan of FTA policy and analyzed the economic effect caused by it. In the analysis of economic effect using world economical model shows not only positive economic effect in home country but also to the foreign country.

Recently, Japan's bilateral relation with Korea and China is getting worse, not in a friendly way. Consequently Japan's future FTA negotiation will be expected to be focused on the East-Asia region. In other words, Japan expressed assistance for the purpose of communication,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East-Asia and will seek individual economic cooperation with each East-Asia country trying to reinforce the stand of Japan. This means that Japan is trying to improve the relation with Korea and China in the other way because it cannot change the relation with Korea and China on its own. That is to say, It can be interpreted as Japan is trying to reinforce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 East-Asia countries for the realization of East Asia community rather than directly negotiating with Korea or China.

Key Words : Free Trade Agreements, Trade Liberalization, Japan-Korea FTA.

* 본 논문은 한국통상정보학회가 주관하여 2005년 중국 남개대학교에서 개최한 “WTO시대의 통상 및 전자상거래 정책”, 국제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대폭 가필, 수정한 것임.

I. 서론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어지는 상황에서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주의 체제하에 WTO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교류체제가 시작되었고, 각국은 WTO를 중심으로 경제교류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사정이 우선시되어 전체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다. 즉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WTO교섭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분야와 할 수 없는 분야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WTO교섭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분야의 경제제휴 수단으로서 FTA(자유무역협정)와 EPA(경제제휴협정)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자유무역주의가 중시되고 있으며 이미 유럽, 북중미,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는 경제공동체 또는 RTA(지역무역협정)에 의해 자유무역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각국은 다국간 또는 2국간 경제협력체제 강화를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WTO 발표에 의하면 FTA는 전 세계에서 2003년 현재 155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약 64%이상의 사례가 1995년 WTO설립 이후에 체결되어진 것이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다국간 경제공동체의 사례로서는 북미의 NAFTA(3개국), EU(25개국), 동남아시아의 ASEAN(10개국)을 들 수 있다. EU와 미국은 대규모 지역경제제휴망을 구축하는 한편, WTO교섭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조금 늦었으나 WTO교섭뿐만 아니라 EPA/FTA교섭을 포함한 대외경제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이 FTA구상에 상대적으로 늦게 참여한 것은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분야인 자동차, 전자, 전기, 기계산업은 FTA에 찬성하나, 국내생산비용이 높은 농업, 어업 등 1차산업 및 섬유, 제조업, 금융, 운송업 등 국내서비스산업은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일본과 FTA교섭을 진행 중인 상대국은 일본의 농업, 어업 등 1차상품시장 개방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시장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 FTA정책의 방향과 그 전략적 함의를 명확히 하며 또한 그 경제적 효과를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는 데에 있다. 일본의 FTA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체제의 유지강화와 외교·안정보장의 확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유무역체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먼저 일본의 FTA정책의 기본방침과 현황을 고찰한 후에 일본이 목표로 하는 FTA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차적으로 그 전략적 의미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II. 일본의 FTA정책과 진행상황

1. 일본의 FTA정책

일본의 대외경제정책은 WTO의 전신인 GATT 시절부터 다각적인 무역교섭의 틀을 존중한 관습에 익숙해져 2국간·지역간 교섭인 FTA에 대해서는 블록경제화로 발전할 가능성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¹⁾ 구체적으로는 2차세계대전후의 혼란으로부터 경제재건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1960년대 전반까지는 무역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성장에 대한 국제수지 제약(외화부족)의 극복에 있었다. 그 이후 1955년(8月11日) GATT가맹이후 1960년대 후반서부터는 자유·무차별주의에 기초한 다각적 무역확대가 일본의 국익에 합치하였고 또한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일본의 전 세계에 대한 공헌이라는 인식이 정착되어 이후 변경되어지는 일이 없었다.

예를 들면 일본의 통상백서에서 「일본은 전후 일관되게 자유·무차별주의에 기초한 다각적인 무역확대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종래의 일본 무역정책은 무역부문에서는 어디까지나 지역주의를 배격하며 자유무역주의를 일관되게 지지한다.」 등으로 서술하고 있는 2)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통백서는 이 시기에 大来, 小島 등에 의해 제창되어진 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구상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있으나 결론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하는 데에 그쳤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는 두 번의 석유위기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상황에서 일본의 대외통상정책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책과 대외무역마찰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는 시기였다. 즉, 이 시기까지 일본은 GATT체제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었으며 냉전체제하 GATT체제의 안정화, 확대가 자유주의진영의 강화에 공헌한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지역경제협력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것은 지역적인 상황에서 보면 일본의 인접국가에 교섭상대국이 없었다는 점과 농산물 자유화를 요구당한다는 측면에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이유가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대외정책의 변화는 1990년대에 들어와 통상성(通産省)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배경에는 이 시기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던 EC의 성립과 NAFTA에 대한 의식이 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에 나타난 EEC, EFTA성립시의 객관적인 분석기술과는 다른 식의 서술이 보이기 시작한다. 즉,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경제통합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세계경제·무역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³⁾는 보류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1992년에는 「GATT로 대표되어지는 글로벌한 시점으로부터 경제후생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시스템의 중핵적인 위치를 가지면서 이것을 보완하는 형태의 다원화를 진행한다.」는 것을

1) 郭眞吾, “일본의 FTA전략 -동아시아의 경제통합과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63권, 한국일본학회, 2005, p.226.

2) 日本通商産業省, 『通商白書』, 1968. pp.239-240.

3) 日本通商産業省, 『通商白書』, 1991. p.107.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보고 이 상태를 「통상질서의 다원화」로 파악하였다.⁴⁾ 즉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지역경제통합의 문제가 적어도 통산성에서는 통상정책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되어 검토되어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통상백서에서는 매년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분석과 상세한 기술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대외정책입안의 또 다른 주체인 외무성(外務省)은 지역무역협정에 관하여 일관되게 회의적,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이러한 외무성의 입장은 1999년의 외교백서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다. 또한 대장성(재무성), 농림성(농림수산성)도 백서를 통해서 보는 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농림성에 한하여 본다면 지역경제협력에 시종 소극적,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거의 확실할 것이다. 일본 농업의 특수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교섭 무대는 GATT/WTO뿐이라고 하는 데에 중심을 두었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에서 일본이 정책전환을 하게 된 전기는 1998년 11월의 한일수뇌회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서이다. 이것을 기점으로 통상정책의 방향전환이 일본정부에 의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다음해의 통상백서(1999년)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즉, 「일본은 종래보다 다각적인 통상시스템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지속해 왔으며 WTO차기교섭을 위해 더욱 중요한 공헌을 하는 것은 물론 다각적 통상시스템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지역통합의 움직임이 저조한 동북아시아지역 등에서 역내의 상호교류상호이해를 도모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제후-통합을 시도하는 다각적 통상시스템 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⁵⁾ 또한 2000년 외교백서도 「지역무역협정은 WTO협정과 정합적이라면 역외국에 대한 장벽이 아니라 개방적인 무역의 추진력이 되며, 또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공헌하는 것이 되어 다각적 무역체제를 보완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⁶⁾ 이로써 지역무역협정은 일본의 대외통상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게 되는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일본이 이와 같은 정책전환을 하게 된 이유로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WTO의 2004년 타결을 목표로 한 신다자간무역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점이다. 따라서 일본의 선택은 WTO를 보완하는 하나의 대체수단으로서 FTA를 채택했다는 견해이다.⁷⁾

둘째로, 한국과 멕시코의 대일FTA구상제안이다.⁸⁾ 이것에 대하여 일본은 1998년 7월 통상산업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FTA는 먼저 국내의 산업, 기업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는가, 적절한 수단은 무엇인가, 무역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FTA는 시장개

4) 日本通商産業省, 「通商白書」, 1991, p.263.

5) 日本通商産業省, 「通商白書」, 1999, pp.300-301.

6) 日本通商産業省, 「通商白書」, 1999, p.92.

7) 郭眞吾, 全揭書, p.226.

8) 이흥배,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일 FTA”, 「韓日經商論集」, 제28권, 한일경상학회, 2004, p.6.

방(=관세철폐)에 의해 발생하는 마이너스효과도 존재함으로 그러한 마이너스효과를 극복하지 않으면 FTA로부터의 이익은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무역자유화와 국내산업구조개혁을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해외에 진출해 있는 자국기업과 국내기업과의 관계 등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FTA정책의 기본방침으로서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각적인 자유무역체제의 보완(대외경제관계의 발전, 경제적 이익의 확보), 일본 및 교섭상대국의 구조개혁 추진,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구상 등을 들고 나왔다(경제제휴촉진관계각료회의결정, 평성(平成) 16년 12월21일). 기본적으로는 먼저 동아시아국가와의 교섭에 전력을 기울이고 동시에 교섭상대국과의 경제관계 현황에 맞추어 FTA이외의 경제제휴 방법(투자협정, 상호승인협정, 투자환경정비 등)도 검토한다고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결국 정리하면 일본의 FTA는 국내적으로는 경제계로부터의 요망, 상대국의 FTA/EPA구축에 의한 일본기업의 불이익 해소, 국내구조개혁과 규제완화, 무역자유화가 상대적으로 느린 국가에의 대응 등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대외적으로는 먼저 WTO교섭의 진행상황을 기초로 하여 EU 및 NAFTA에의 대응, 다른 국가지역과의 관계 유지와 강화, ASEAN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동아시아경제공동체)에의 대응이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2. 일본 FTA의 진행상황

현재 일본은 이미 싱가포르, 멕시코와 조약을 체결, 발효하고 있다(JSEPA, JMEPA). 일본 FTA의 2국 간교섭상대국은 동아시아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 및 한국과는 정치적인 요인(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에 의해 중단되어진 상태이다. 일본의 2005년 12월 현재의 동아시아 국가지역과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 동아시아국가와 일본의 FTA/EPA 진행상황

상 대 국	상 황
태 국	2003년 12월 수뇌회담에서 교류개시합의. 2004년 2월 16일-17일에 제1회 교섭, 4월 7일-9일에 제2회 교섭, 6월 16일-18일에 제3회 교류, 8월 4일-6일에 실무자급 회합, 9월 13일-15일에 제4회 교류, 12월 7-9일에 제5회 교류, 2월 24일-3월 3일에 제6회 교류, 3월 29일-4월 1일에 고위급 회합을 가짐.(이 외에도 분야별 회합 등을 수시 개최)
필 리 핀	2003년 12월 수뇌회담에서 교섭개시합의. 2004년 2월 4-5일에 제1회 교섭, 4월 14일-16일에 제2회 교섭, 7월 5일-7일에 제3회 교섭, 9월 6일-8일에 제4회 교섭, 10월 25일-29일에 제5회 교섭을 가짐.(이외에도 분야별 회합 등을 수시 개최) 11월 29일 수뇌회담에서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 서명 작업을 위하여 현재 협정 조문을 교섭중.
말레이시아	2003년 12월 수뇌회담에서 교섭개시 합의. 2004년 1월 13일에 제1회 교섭, 3월 9일-11

	일에 제2회 교섭, 5월 19일-21일에 제3회 교섭, 7월 19일-21일에 제4회 교섭, 9월 25일-27일에 제5회 교섭, 11월 4일-6일에 제6회 교섭, 2005년 1월 18일-19일, 5월 9-10일, 5월 17-22일에 고위급 회합을 가짐.(이 외에도 분야별 회합 등을 수시 개최) 5월 25일 수뇌 회담에서 큰 테두리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 서명 작업을 위하여 현재 협정 조문을 교섭중.
인도네시아	2005년 1월부터 「공동검토그룹」을 3회 개최하여 수뇌에의 제언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 제2회 회합(3월 4-5일) 및 제3회 회합(4월 11-12일)에는 산학관계단체도 참가. 2005년 6월의 수뇌회담에서 교섭 개시 합의.
ASEAN	2002년 11월 日-ASEAN포괄적 경제제휴에 관한 수뇌들의 「공동선언」에서 승인된 「일본과 ASEAN전체와의 포괄적 경제 제휴 실현을 위한 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ASEAN가맹국 전체와 일본이 2국간 경제제휴를 확립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으로 추진. 2004년 11월의 일ASEAN수뇌회담에서 2005년 4월에 일ASEAN포괄적 경제제휴협정교섭을 개시하는 것으로 합의. 4월 13-15일에 東京에서 제1회 본 교섭을 개최.
한국	2003년 10월 수뇌회담에서 정부간교섭을 연내에 개시하여 2005년 내에 실질적으로 종료시킬 것을 합의. 2003년 12월 22일에 제1회 교섭, 2004년 2월 23일-25일에 제2회 교섭, 4월 26일-28일에 제3회 교섭, 6월 23일-25일에 제4회 교섭, 8월 23일-25일에 제5회 교섭, 11월 1일-3일에 제6회 교섭을 가짐.
일중환	1999년 11월 일중환 수뇌회담의 합의를 기반으로 일본의 종합연구개발기구(NIRA),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한국대의경제정책연구원(KIEP) 삼자간에 공동연구를 실시중. 2003년부터 FTA의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부문별 효과 등에 관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투자에 대해서는 2004년 11월 일중환 수뇌회담에서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간 메커니즘」 및 「투자관련 법적체계에 관한 정부간 협의」의 창설에 합의. 2005년 5월 18-20일에 北京에서 제1회 정부간 협의를 개최.

주 : 이미 체결한 싱가포르를 제외.

자료 : 日本外務省 「東アジア諸国との経済連携協定交渉の現行と課題」, 2005.

III. 일본의 FTA 전략

일본의 FTA는 국내기업 또는 해외기업과의 경쟁조건 개선에 의한 저렴한 양질의 물품·서비스의 제공, 수출입 시장의 확대, 국내외 기업과의 제휴촉진에 의한 효율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규칙에 근거한 국제간 경제 분쟁의 처리, 국제간 무역체도의 조화(EPA/FTA에 의한 국제규정의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FTA교섭의 결과를 WTO로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인 상호의존관계를 심화시킴으로서 상대국과의 정치적 신뢰감을 강화시키며 일본의 글로벌한 외교적 영향력과 이익을 확대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FTA는 경제외교에 유연성을 확보시켜 경제상호의존과 정치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정치외교상의 성과도 전략으로서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FTA 전략은 교섭상

대국과의 경제관계에 의해 FTA뿐만 아니라 EPA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다음의 <표Ⅲ-2>은 개별국가들에 대한 일본 FTA의 전략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표Ⅲ-2> 일본의 개별FTA교섭의 전략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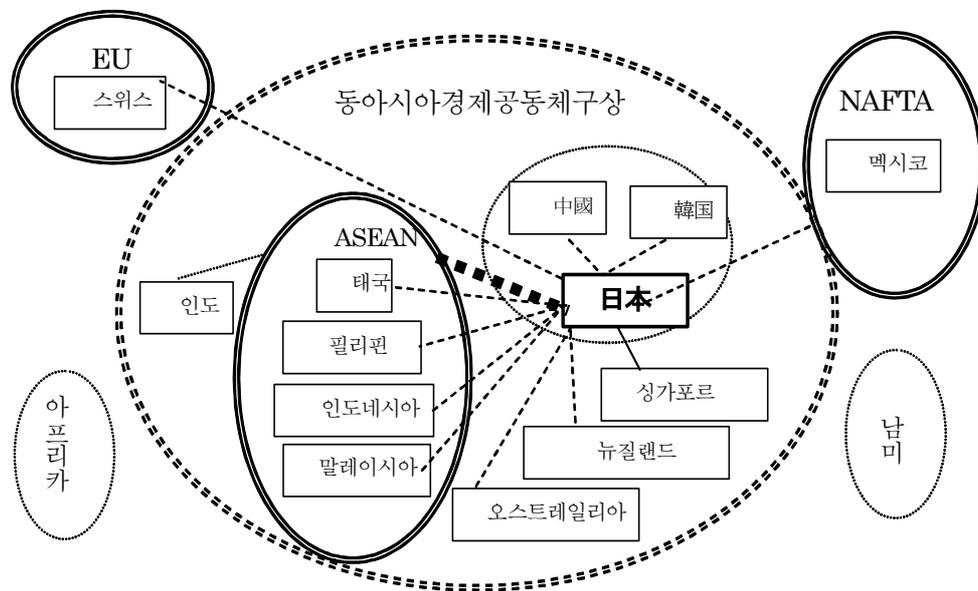
국가	전략적 의미
ASEAN	2국간 FTA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요ASEAN국가(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와는 일-싱가포르 경제제휴협정의 골격을 기초로 하여 개별제휴에서 ASEAN전체로 확대하는 과정을 고려하고 있음.
한국	가능한 한 조기체결을 목표로 하여 ASEAN과 중국과의 교섭에 연결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중국	일중한+ASEAN을 중핵으로 하여 동아시아경제제휴라는 관점에서 FTA의 가능성을 확대시킨다. 현재로는 WTO협정 이행상황, 중국경제의 동향, 일중관계 전체 상황, WTO신 라운드와 아시아 각국간의 FTA교섭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방침임.
홍콩	일중간의 경제 상호의존 관계를 전망하는 과정 속에서 FTA의 가능성을 모색.
대만	WTO협정상의 독립관세지역으로 FTA체결 가능성은 이론적·법기술적으로는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나 관세율은 이미 낮은 수준임으로 FTA를 통하여 관세인하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쌍방의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임. 특정분야에 따라 관계강화를 검토중.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농산물 취급이 교섭의 중심이 될 수 있으나 많은 점에서 일본과 가치관이나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특히 오스트레일리아는 주요한 자원공급처로서 양국 경제계의 체인 그대로 포괄적인 FTA체결을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남겨놓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에서의 경제제휴를 도모하는 2단계 방식을 취하고 있음.
멕시코	먼저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지불하고 있는 멕시코를 상대로 대응하고 장래에는 NAFTA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음.
칠레	칠레와의 EPA/FTA는 관세구조, 무역액, 주요수출품 등으로부터 판단하여 중장기적인 과제로 고려하고 있음.
남미남부공동시장 (MERCOSUR)	중남미에서의 경제통합의 견인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미주자유무역지역구상(FTAA)체결의 움직임, EU와의FTA교섭 상황 등을 주시하면서 대처하고 있음.
러시아	FTA와 같은 포괄적 경제관계의 강화를 검토중에 있음.
남아시아	현재로서는 인도가 국제경제에 어떤 식으로 통합해 나가는지를 주목하면서 제휴방식을 고려하고 있음.
아프리카	FTA를 개발도상국지원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일본경제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오는가도 고려하고 있음.
북미·EU	농림수산물의 취급 등 상호 곤란한 과제를 가지고 있음. 또한 일미FTA에는 무역전환 효과가 있으며 당면과제로는 특정분야(상호승인 등)에서의 작업과 규제개혁 대화 등을 통하여 관계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일본은 동아시아, 북미, 유럽의 세 지역을 주요 파트너로서 생각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 세 지역이 무역의 8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지역과의 무역비중이 높으며 지속적인 자유화를 통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이 ASEAN과의 포괄적 경제체제를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일본과 ASEAN간의 경제통합 촉진은 세계시장에서의 일본과 ASEAN의 경쟁력 강화, 물품 및 서비스 무역의 점진적인 자유화, 자유투자제도의 정비, 경제통합을 위한 새로운 분야의 발굴, ASEAN국가간의 개발격차의 축소 등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III-3>에서 보듯이 일본과의 무역량이 많은 동아시아지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황을 보더라도 FTA체결에 대한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III-3> 각국의 관세율

	일본	EU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전체생산품	2.9%	4.1%	10.0%	16.1%	14.5%	25.6%	25.8%	37.5%
비농산품	2.3%	3.9%	9.1%	10.2%	14.9%	23.4%	24.2%	36.0%

자료 : 日本外務省, 「我が国のFTA戦略」, p.16.



[그림 III-1] 일본의 FTA전략과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구상

일본은 FTA를 통하여 경제협력의 파트너를 구축함과 동시에 전략적 의미에서의 경제·정치적 안정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높은 무역장벽을 가진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ASEAN과 일본, 중국, 한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도 현재화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세계최대규모의 경제공동체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일본에게 있어서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구상은 대외경제관계의 전략적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한국 및 ASEAN과의 FTA를 추구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그러한 토대 위에서 중국과의 FTA체결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그림 1]은 이러한 일본의 FTA전략과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구상을 종합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IV. FTA의 경제적 효과

1. 기존 연구결과의 요약

일반적으로 FTA형성과 관련된 분야는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⁹⁾

첫째, FTA형성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로 실증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으로 나누며, 국제경제학의 과제에 속한다.

둘째, 협정체결교섭과 그 실시는 실질적으로는 정치, 외교상의 과제이다. 실효성 있는 FTA교섭과 체결, 실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국내정치, 외교교섭이 필요한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주로 정치경제학이나 국제관계론의 과제이다.

셋째, GATT/WTO 체제와의 정합성의 문제이다. 해당 FTA형성은 어떠한 조건하에서 GATT/WTO규칙과의 정합성이 담보 또는 확보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또한 현행 GATT/WTO 규칙의 애매 모호함을 배제하여 어떠한 규칙을 개정하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이기 하다.

넷째, FTA형성은 세계무역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즉 FTA는 세계자유무역체제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위의 사항들을 보면 FTA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다양한 부문에 걸쳐서 논점이 분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효과에만 국한시켜 실증분석을 통하여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FTA의 경제적 효과는 교과서적인 비교정태분석으로는 다음의 여섯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① 무역창출효과, ② 무역전환효과, ③ 직접무역편향효과, ④ 간접무역편향효과, ⑤ 역내교역조건효과, ⑥ 역외교역조건효과

9) 清水 降雄, “東アジア自由貿易協定—日本の政策と數量的評價—”, 「Working Paper」, 제504호, 일본대학 국제관계학부국제관계연구소, 2005, p14-15.

이러한 효과는 FTA고유의 효과로 단독주의에 기초를 둔 무역장벽의 인하 또는 무차별적으로 무역장벽을 인하는 다국간주의의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는 FTA특유의 효과이다.

FTA형성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수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는 크게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델을 이용한 분석과 계량경제모델을 이용한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CGE모델은 Walras의 일반균형체계, Leotief의 투입산출분석, 신고전학파의 최적화원리, Scarf에 의한 균형가격의 근사값 산출알고리즘의 개발, 현실경제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에 의해 기존의 추상적인 일반균형모델이 현실경제를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실용적인 모델로 변형된 것이다. 10) 동일시점에서 대부분 다산업이 직접 링크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분석 대상국이 다수일 경우에는 방대한 모델 구축과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에 의해 GTAP의 데이터베이스와 모델에 의존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11)

반면에 거시계량경제모델에 의한 분석은 하나의 재화가 시계열이라고 하는 형태로 링크되어 있다. CGE모델의 단점인 비교정태학적인 문제점을 보완하여 FTA형성의 동태적인 영향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는 데에 장점이 있다.

다음은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중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CGE모델에 의한 분석과 거시계량경제모델에 의한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4> CGE모델에 의한 FTA형성의 효과(Ma and Wang(2002))

실질경제성장률의 누적효과(%p, 2003-2012)												
	JP	US	KR	TW	HK	CN	SG	ID	MY	PH	TH	World
CN+ASEAN	-0.02	0.00	-0.11	-0.08	1.02	0.37	3.95	0.70	0.18	0.02	0.98	0.03
JP+ASEAN	0.08	-0.01	-0.07	-0.09	-0.05	-0.06	3.87	0.42	-0.43	-0.08	1.67	0.02
ASEAN+3	0.11	-0.03	0.93	-0.25	1.40	0.66	4.49	1.12	-0.18	0.01	2.05	0.07

<표 IV-5> CGE모델에 의한 FTA형성의 효과(堤(2004))

실질경제성장률의 누적효과(%p, 2003-2012)											
	JP	US	KR	TW	HK	CN	SG	ID	MY	PH	TH
JP+KR	0.009	-0.001	0.207	-0.007	-0.000	-0.004	0.180	-0.008	-0.009	-0.007	-0.039
JP+KR+ASEAN	0.038	0.003	0.274	-0.031	0.023	-0.019	0.985	1.294	1.731	1.119	3.409
ASEAN+3	0.061	0.001	0.366	-0.094	0.899	0.497	1.176	1.319	1.813	1.152	3.576

10) CGE, GTAP모델의 구조, 해설, 응용에 관해서는 Shoven, J. B. and Whalley., Applying General Equilibrium Mod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Hertel, T. W., Global Trade Analysis : Modeling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川崎 研一, 「応用一般均衡モデルの基礎と応用」, 日本評論社, 1999. 등을 참조.

11) 모델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로는 GEMPACK, GAMS 등이 사용되어진다.

〈표 IV-6〉 WEISS계량모델에 의한 FTA형성의 효과(清水(2005))

경제성장률 효과(%p, 2010)								
	JP	US	KR	ANIEs4	ASEAN4	CN	선진국	세계
JP+KR+중국	0.30	0.17	3.52	1.85	0.24	0.42	0.15	0.24
ASEAN+3	0.56	0.23	4.22	2.26	1.12	0.56	0.22	0.35

- 주) 1. ANIEs4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ASEAN4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말함.
2. 세계는 그이외의 국가를 말함

분석결과를 비교해 보면 WEISS계량모델에 의한 분석 결과가 일반적으로 CGE모델에 의한 결과보다 FTA형성이 각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세계경제계량모델은 CGE모델에 비해 단기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한 국가에서 발생한 거시경제적인 충격이 당사국만이 아니라 상대국, 제3국을 포함한 타국가에도 미치는 상호의존의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각국의 거시경제적 충격에 대한 조정과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셋째 요인 즉, 각국의 거시경제적 충격에 대한 조정속도의 차이는 FTA형성이 중장기적인 성장경로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거시계량경제모델을 이용하여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12)

2. 경제적 효과의 추정

1) 분석모형 및 데이터

실증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이며 데이터기간은 1972년부터 2004년까지이다. 각국의 데이터는 IMF/IFS로부터 추출하였다.

각국간의 무역연관모델을 이용하여 세계link모델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로는 Armigton(1969), Hickman and Lau(1973), Moriguchi(1973), Klein-van Peeterssen(1973), Hass and Turner(1990), Ichimura et al.(1985), Toida et al.(1995)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거시계량경제모델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행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의 거시계량경제모델을 추정하고 무역링크

12)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델은 ICSEAD모델을 참조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稲田義久, "ICSEAD世界リンクモデルの構造", ICSEAD Working Paper Series(B) 96-1, 1996년을 참고.

모델을 통하여 전체 모델을 연결된 하나의 모델로 파악하게 된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모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역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³⁾ 각국, 지역의 달러기준 수출가격함수와 수입함수가 내생화되어 결정된다.

먼저 i국에서 j국으로의 수출량을 T_{ij} 라고 한다. 그러면 i국의 실질수출 (E_i)과 실질수입 (M_j)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표 IV-7> 국제무역 매트릭스

		j국
			
i국	T_{ij}	E_i
			
		M_j		W

$$E_i = \sum_j T_{ij}$$

$$M_j = \sum_i T_{ij} \dots\dots\dots (1)$$

즉, 이 표를 종으로 합하며 각국이 세계각지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합계가 계산되며, 역으로 횡으로 합하면 세계각지에 수출하고 있는 합계가 계산되어지게 된다. 또한 세계무역(W)은 다음과 같으며, 세계수출합계는 세계수입합계와 같아지게 된다.

$$W = \sum_i E_i = \sum_j M_j = \sum_i \sum_j T_{ij} \dots\dots\dots (2)$$

이 관계는 명목치(각각 V 라고 한다)에 관해서도 동일하다.

$$EV_i = \sum_j TV_{ij}$$

$$MV_j = \sum_i TV_{ij}$$

$$WV = \sum_i EV_i = \sum_j MV_j = \sum_i \sum_j TV_{ij} \dots\dots\dots (3)$$

여기서,

13) 무역부문의외의 타경제부문은 부록의 추정결과를 참조.

$$EV_i = PE_i \times E_i, \quad MV_i = PM_i \times M_i$$

$$WV = \sum_i PE_i \times E_i = \sum_i PM_i \times M_i \dots\dots\dots (4)$$

이다. 따라서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질 수 있다. 즉,

$$PM_j = \sum_i \alpha_{ij} \times PE_i \quad (\alpha_{ij} = \frac{T_{ij}}{M_j}, \sum_i \alpha_{ij} = 1) \dots\dots\dots (5)$$

이 (5)식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각국의 수입가격 (PM_j)은 각각 각국의 수출가격 (PE_i)과 정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으로 후자로부터 전자를 도출할 수 있다.

수출함수와 수출가격함수가 결정되어지면 수입함수와 수입가격함수는 정의식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稲田・藤川(1994)에 의거하여 수출가격함수와 수출함수의 모형화를 시행한다.

(1) 수출가격함수

수출가격은 ①각국 수출시장의 경쟁조건, ②각국의 국내비용조건, ③환율의 변화라는 세가지 요인에 의해 모형화되어진다.

수출시장의 경쟁조건은 수출경쟁가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표되어진다. A국을 수출국이라고 하면 A국의 수출경쟁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A국의 무역시장(A국 이외의 국가전부) 수입가격을 A국의 수출 중에 점유하고 있는 해당국가의 수출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가격이다.

$$A\text{국의 수출경쟁가격} = \sum_{K=1}^K \frac{A\text{국의 제}K\text{국으로의 수출}}{A\text{국의 총수출}} \times \text{제}K\text{국의 수입가격}$$

수출가격함수에서 수출경쟁가격 계수의 이론값은 플러스이다. 예를 들어 해외(K국)시장에서의 수입가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되었다고 한다면 K국시장에서는 경쟁수출국인 A국도 그 수출가격을 얼마정도 인하할 수밖에 없으며, A국의 수출처로서 B국시장의 중요도가 크다면 A국의 가격인하폭은 크게 된다.

또한 수출재의 가격은 국내시장용 재화의 공급가격과도 어느 정도 비례적일 것임으로 국내비용조건에 관해서는 해당국의 국내가격이 이용되며 수출가격함수에서의 계수는 양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마지막으로 환율가치의 하락(환율상승)은 국내의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달러기준 수출가격의 인하를 의미함으로 그 계수는 음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결국 수출가격함수는 다음과 같이 모형화되어진다.

$$\text{Log(수출가격)} = F(\text{Log(국내가격)}, \text{Log(수출경쟁가격)}, \text{Log(환율)})$$

각국의 수출가격함수의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IV-8>과 같다.

<표 IV-8> 수출가격의 결정요인

	국내가격	수출경쟁가격	환율
한국	0.160		-0.956
중국	0.229	0.686	-0.140
일본	0.971	0.595	-0.282

함수형태는 로그선형의 형태임으로 추정된 계수는 각각의 요인에 대한 탄력성을 나타내게 된다. 먼저 자국가격에 대한 탄력성의 값은 일본이 가장 높으며 일본의 수출가격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자국의 비용조건에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수출경쟁가격에 대한 탄력성 값은 중국이 일본보다 높으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신축적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환율에 대한 반응은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탄력성은 0.140으로 아직은 낮은 상태로 이것만으로 판단한다면 중국의 환율상승폭이 크다고 하여도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2) 수출함수

수출은 상대방 국가 입장에서는 수입임으로 수출함수는 수입함수라고도 볼 수 있다. 수출함수의 모형화는 다음과 같다.

$$\text{Log}(B\text{국의 } A\text{국으로부터의 실질수입}) = F(\text{Log}(B\text{국의 소득}), \text{Log}(\text{상대가격}))$$

단,

$$B\text{국의 } A\text{국으로부터의 실질수입} = \frac{B\text{국의 } A\text{국으로부터의 명목수입(달러기준)}}{A\text{국의 수출가격(달러기준)}}$$

$$B\text{국의 소득} = B\text{국의 실질국내총생산}(B\text{국통화기준})$$

$$\text{상대가격} = \frac{A\text{국의 수출가격(달러기준)} \times B\text{국통화의 환율}(B\text{국통화기준})}{B\text{국의 국내가격}(B\text{국통화기준})}$$

여기서도 함수의 형태는 로그선형의 형태임으로 각항의 계수는 탄력성을 의미하며, 소득항의 계수는 양, 상대가격항의 계수는 음으로 예상되어진다.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II-9>과 같다.

〈표 IV-9〉 한중일 3국의 수입결정요인

		소득탄력성	상대가격의 탄력성
한국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3.027	-0.792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0.550	-0.792
	ROW로부터의 수입	1.119	-0.735
중국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3.026	*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1.220	-0.587
	ROW로부터의 수입	1.772	-0.402
일본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3.384	-1.209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11.045	-1.138
	ROW로부터의 수입	3.290	-0.456

먼저 소득탄력성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으며, 한계수입성향도 높을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특히 중국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일간의 상호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은 한계소비성향은 낮으나 수입의 한계성향은 상대적으로 높아 무역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격탄력성에서도 일본의 중국과 한국에 대한 탄력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약 1.2인 것에 비하여 그 이외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약 0.46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일본의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은 완성재 또는 최종수요재적인 것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그 이외 나라들로부터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반제품적인 것이 중심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과 중국의 가격탄력성은 1이하로 외국으로부터의 최종수요재보다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재화가 수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역링크모델에서는 추정되어진 수출가격함수와 수입함수에 근거하여 각국의 명목수입량(달러기준)이 계산되어진다. 그것들은 환율로 조정되어진 자국통화기준의 수입량이 되어 재차 각국의 거시모델내에서 국내총생산결정에 피드백 되어진다. 또한 그것들과 동시에 결정되어진 수입가격함수와 수입함수도 마찬가지로 환율로 조정되어진 후 각국모델내의 방정식에 피드백되어 있다.¹⁴⁾

2) 시뮬레이션 분석

본 논문에서는 거시계량모델에 의한 한·일 및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먼저 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의 과급경로를 보도록 한다. FTA에 의한 관세철폐는 무역가격의 인하를 의미하므로 무역관련모델을 통하여 수출국, 수입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A국이 B국

14) 각각의 방정식 추정결과는 부록을 참조.

에 대하여 수출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B국에 있어서는 수입가격의 인하를 의미하게 되며 B국의 수입은 증가한다. 이 효과는 수입합수 가격항의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커지게 된다. 또한 이 효과는 B국 총수입중에 차지하는 A국의 비중이 클수록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국내가격의 하락은 수입합수중의 상대가격변화 효과를 일부 상쇄하게 되나, B국의 실질소득은 증가하게 됨으로 수입확대적인 방향으로의 효과도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한-일 및 한-중일이 자유무역권을 형성하여 상호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상호 수출입가격을 인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즉 상기의 효과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나 그 효과를 시뮬레이션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도록 한다.

시뮬레이션은 모델을 이용하여 1999~2004년의 6년간에 한일, 한중일간에 관세가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3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를 분석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적 데이터로 IMF통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총수입관세/총수입액으로 정의되어진 각국의 관세율은 한국7.5%, 중국6.2%, 일본2.7%였다. 이러한 관세율은 아시아경제연구소에서 제공된 국제산업연관표의 관세율과 정합적이었다. 여기서는 大西尹(2000)에 근거하여 해당국가들간에 관세가 철폐되어 그것에 상응하는 수입가격이 감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의<표 IV-10>, <표 IV-11>과 같다.

<표 IV-10> 한일FTA의 경제적 효과

(단위 : %)

		2년차	4년차	6년차
한국	GDP	1.896	0.431	0.125
	소비	1.05	0.672	0.325
	투자	0.002	0.543	0.275
	수출	1.461	1.335	1.215
	수입	3.186	1.695	1.534
중국	GDP	-0.2	0.076	0.212
	소비	-0.256	-0.039	0.138
	투자	-0.104	-0.081	0.197
	수출	0.507	0.839	0.952
	수입	-0.55	0.208	0.601
일본	GDP	0.093	0.097	0.08
	소비	0.039	0.088	0.08
	투자	0.101	0.103	0.085
	수출	0.837	0.762	0.754
	수입	0.585	0.754	0.815

각 수요 항목의 기준치에 대한 증감률

〈표 IV-11〉 한중일FTA의 경제적 효과

(단위 : %)

		2년차	4년차	6년차
한국	GDP	1.939	0.514	0.262
	소비	1.041	0.707	0.434
	투자	5.625	0.524	0.442
	수출	1.993	1.920	2.097
	수입	3.516	2.135	1.143
중국	GDP	-0.427	0.005	0.384
	소비	-0.486	-0.150	0.221
	투자	-0.166	-0.360	0.302
	수출	2.940	4.008	4.606
	수입	1.260	2.940	3.878
일본	GDP	0.036	0.025	0.017
	소비	-0.010	0.024	0.004
	투자	0.032	0.016	0.035
	수출	1.038	1.080	1.224
	수입	0.906	1.249	1.557

각 수요 항목의 기준치에 대한 증감률

각 표에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먼저 GDP에 대해 살펴보면, 각국에 대한 관세철폐의 영향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의 정도가 작은 이유로는 각국의 수출과 수입이 확대되어지는 상황에서 순수출변동의 폭이 크지 않으며 순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②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FTA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증가가 수출증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입가격의 인하는 국내 평균가격을 인하시켜 소비, 투자를 촉진시키며 결국 국내수요를 확대시킨다. 이 효과로 인한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③ 중국경제에 있어서는 순수출이 확대되어 당초의 2, 3년을 제외하면 큰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알 수 있듯이 자유무역협정은 동아시아 전체에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거시계량모델에 의한 자유무역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산업레벨에서의 효과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격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최적행동메커니즘이 도입된 CGE모델의 응용이 요구되어진다 할 것이다. 이것은 차후의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V. 결 론

최근에 들어와 일본 국내에서 FTA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WTO에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국가와의 경제체휴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정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FTA정책의 방침과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의미와 경제적 효과를 거시계량 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하였다.

최근 일본은 중국, 한국과의 2국간 관계가 우호적인 방향이 아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의 FTA교섭은 동남아시아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즉 일본이 동남아시아국가에서의 커뮤니티 형성 및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원조를 표명한 것도 그 일환일 것이다. 일본은 동남아시아국가와 개별적으로 경제적인 제휴협력을 도모할 것이며 일본의 입장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한일, 중일관계의 개선이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본이 중국, 한국과의 직접 교섭보다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다른 동아시아국가와의 경제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의 지리적 범위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에서의 중국과의 주도권 경쟁을 전략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거시계량모델을 이용하여 한일FTA, 한중일FTA의 경제적 효과를 시뮬레이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서는 자유무역협정은 동아시아전체에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 3국중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경제적 효과만을 다루고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산업레벨에서의 효과분석을 위하여 CGE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참 고 문 헌

- 郭眞吾, “일본의 FTA 전략 -동아시아의 경제통합과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63권, 한국일본학회, 2005.
- 이흥배,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일 FTA”, 『韓日經商論集』, 제28권, 한일경상학회, 2004.
-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책연구』, 01-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日本通商産業省, 『通商白書』, 각년도판.

- 日本外務省, 「外交白書」, 各년도판.
- 日本外務省, 「東アジア諸国との経済連携協定交渉の現状と課題」, 2005.
- 日本外務省, 「我が国のFTA戦略」, 2004.
- 日本農林水産省, 「農林水産分野におけるアジア諸国とのEPA推進について」, 2004.
- 大西広・尹清洙 「日中韓3国連結小型モデルによる日韓分および日韓+中自由貿易協定の効果分析」, 『経済論叢』, 第166巻 第3号, 2000.
- 堤 雅彦, 「日韓中の三カ国FTAとその経済的帰結: CGEモデルによる分析」,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 2004.
- 川崎 研一, 「応用一般均衡モデルの基礎と応用」, 日本評論社, 1999.
- 清水 降雄, “東アジアの計量分析—マクロ経済効果—”, 『国際関係研究』, 제26권 제2호, 일본대학 국제관계학부 국제관계연구소, 2005.
- 清水 降雄, “東アジア自由貿易協定—日本の政策と数量的評価—”, 『Working Paper』, 제504호, 일본대학 국제관계학부 국제관계연구소, 2005.
- 稲田義久, “ICSEAD世界リンクモデルの構造”, ICSEAD 「Working Paper Series(B)」, 96-1, 1996.
- Hertel, T. W., *Global Trade Analysis : Modeling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Ma, J. and Z. Wang, “Options and Implications of Free Trade Arrangements in East Asia”, Paper presented at the 5 th Annual Conference on Global Economic Analysis held at Taipei on June 2002.
- Nakajima, T., and O.K. Kwon. 2001. “An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s of Japan-Korea FTA”, *ERINA Discussion Paper No. 0101e. Niigata, Japan :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 Shoven, J. B. and Whalley., *Applying General Equilibrium Mod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Armington, P.S., “A Theory of Demand for Products Distinguished by Place of Production”, *IMF Staff Papers*, 16(1), 1969.
- Hichman, B.G. and L.J. Lau,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and Export Demands in a World Trade Model”, *European Economic Review*, 4, 1973.
- Moriguchi, C., “Forecasting and Simulation Analysis of the World Economy”, *A.E.R.*, 63(2), 1973.
- Klein, L.R. and A. van Peeterssen, “Forecasting World Trade within Project LINK”, in R.J. Ball ed., *The International Linkage of National Economic Models*, North-Holland, 1973.
- Haas, R.D., and A.G. Turner, “The World Trade Model : Revised Estimates”, *Journal of Policy Modeling*, 12(1), 1990.

부 록

- (1) $GDP.J=CP.J+IF.J+CG.J+EX.J-IM.J+DISC.J$
- (2) $GDP.K=CP.K+IF.K+CG.K+EX.K-IM.K+DISC.K$
- (3) $GDP.C=CP.C+IF.C+CG.C+EX.C-IM.C+DISC.C$
- (4) $CP.J=13928.8+.371472*(GDP.J)+.295472*(CP.J(-1))$
 (8.95) (6.80) (2.93)
 OLS (1972-2004) $R^2=.999$ SD= 2,154.14 DW= 1.3
- (5) $CP.K=25929.5+.291082*(GDP.K)+.421513*(CP.K(-1))$
 (3.52) (3.75) (2.69)
 OLS (1983-2004) $R^2=.985$ SD= 10,634.8 DW= 1.144
- (6) $CP.C=5081.43+.106580*(GDP.C)+.685138*(CP.C(-1))$
 (4.00) (2.01) (4.64)
 OLS (1992-2004) $R^2=.993$ SD= 789.2930 DW= 2.09
- (4) $IF.J=-8791.3+.295*(GDP.J)-1353.4*(I.J-DOT(PGDP.J))+12349.*(D9091)-16923*(D0204)$
 (-2.08) (26.31) (-1.91) (3.83) (-5.76)
 OLS (1975-2004) $R^2=.975$ SD= 4,323.87 DW= 1.056
- (5) $IF.K=1869.48+.395450*(GDP.K)-2396.96*(I.K-DOT(PGDP.K))-50109.4*(D9904)$
 (.22) (16.49) (-2.63) (-5.52)
 OLS (1983-2004) $R^2=.954$ SD= 11,332.6 DW= 1.417
- (6) $IF.C=-5230.17+.463677*(GDP.C)-245.456*(I.C-DOT(PGDP.C))-3629.06*(D00)$
 (-4.12) (29.31) (-2.24) (-2.25)
 OLS (1991-2004) $R^2=.985$ SD= 1,534.93 DW= 1.284
- (7) $EX.J=EXN.J/PEX.J*100$
- (8) $EX.K=EXN.K/PEX.K*100$
- (9) $EX.C=EXN.C/PEX.C*100$
- (10) $EXN.J=3872.75+1.00159*(EXMN.J*RATEJ/1000)$
 (5.37) (59.66)
 OLS (1979-2004) $R^2=.993$ SD= 751.8851 DW= 1.018
- (11) $EXN.K=-3442.15+1.23702*(EXMN.K*RATEK/1000)$
 (-2.35) (109.52)
 OLS (1983-2004) $R^2=.998$ SD= 4,045.74 DW= 1.643

- (12) $EXN.CN = -1192.00 + 1.20874 * (EXMN.CN * RATEC / 100)$
 (-6.60) (144.93)
 OLS (1991-2004) $R^2 = .999$ SD= 380.5606 DW= 1.554
- (13) $IM.J = IMN.J / PIM.J * 100$
- (14) $IM.K = IMN.K / PIM.K * 100$
- (15) $IM.C = IMN.C / PIM.C * 100$
- (16) $IMN.J = -11460.6 + 1.147 * (IMMN.J * RATEJ / 1000)$
 (-1.05) (18.39)
 Orrcut (1989-2004) $R^2 = .985$ SD= 810.9953 DW= 1.844 RO=0.977
- (17) $IMN.K = -11547.2 + 1.28818 * (IMMN.K * RATEK / 1000)$
 (-4.38) (70.12)
 OLS (1990-2004) $R^2 = .997$ SD= 4,152.18 DW= 1.675
- (18) $IMN.C = -1037.31 + 1.20475 * (IMMN.C * RATEC / 100)$
 (-5.42) (121.19)
 OLS (1990-2004) $R^2 = .999$ SD= 449.3641 DW= 1.755
- (19) $PEX.J = -103.067 + 2.07775 * (WPI.J)$
 (-7.31) (15.21)
 OLS (1990-2004) $R^2 = .943$ SD= 2.93688 DW= 1.199
- (20) $PEX.K = 82.0264 + .197106 * (PGDP.K)$
 (11.36) (2.30)
 OLS (1985-2004) $R^2 = .185$ SD= 8.44369 DW= 1.058
- (21) $PEX.C = 4.90017 + 1.06407 * (PGDP.C)$
 (.42) (7.63)
 OLS (1985-2004) $R^2 = .751$ SD= 16.2164 DW= .865
- (22) $PIM.J = -15.2632 + .377656 * (PUMJ) + .663057 * (RATEJ)$
 (-1.10) (3.74) (19.88)
 OLS (1985-2004) $R^2 = .962$ SD= 3.66579 DW= 1.727
- (23) $PIM.K = -14.3477 + .354564 * (PUMK) + .064895 * (RATEK)$
 (-1.81) (5.40) (22.20)
 OLS (1985-2004) $R^2 = .963$ SD= 2.81790 DW= 2.121
- (24) $PIM.C = -130.909 + .808335 * (PUMC) + 18.2388 * (RATEC)$
 (-4.38) (3.59) (12.77)
 OLS (1990-2004) $R^2 = .92$ SD= 6.94926 DW= 1.604

- (25) $CU.J=84.5103+2.15386*(GDP.J/N.J)-.859047*(K.J(-1)/N.J)$
 (8.36) (5.51) (-6.99)
 OLS (1980-2004) $R^2=.819$ SD= 3.35310 DW= 1.055
- (26) $CU.K=69.4981+.498899*(GDP.K/N.K)-.170563*(K.K(-1)/N.K)-5.89418*(D0103)$
 (29.91) (11.30) (-10.30) (-3.46)
 OLS (1980-2004) $R^2=.859$ SD= 2.31664 DW= 1.363
- (27) $CU.C=100.598+1.53242*(GDP.CN/N.C)-1.13231*(K.C(-1)/N.C)-1.34497*(D9092)$
 (411.79) (2.01) (-2.80) (-6.27)
 OLS (1983-2004) $R^2=.688$ SD= .329658 DW= 1.234
- (28) $K.J=(1-D.J/100)*K.J(-1)+IF.J$
- (29) $K.K=(1-D.K/100)*K.K(-1)+IF.K$
- (30) $K.C=(1-D.C/100)*K.C(-1)+IF.C$
- (31) $L.J=5397.53+.007261*(GDP.J)-2633.68*(W.I.J/PGDP.J)-194.477*(D0204)$
 (29.28) (15.94) (-6.32) (-5.90)
 OLS (1980-2004) $R^2=.986$ SD= 39.6502 DW= 1.36
- (32) $L.K=1413.28+.001338*(GDP.K)$
 (12.73) (7.32)
 Orrcut (1980-2004) $R^2=.992$ SD= 26.4748 DW= 1.153 RO=0.883
- (33) $L.C=47371.5+.736280*(GDP.C)-436.784*(W.C/PGDP.C)+8033.19*(D9092)$
 (52.57) (11.92) (-7.61) (6.72)
 OLS (1983-2004) $R^2=.962$ SD= 1,860.08 DW= 1.234
- (34) $UR.J=-11.6853+15.9962*(W.I.J/WPI.J)$
 (-4.70) (6.29)
 Orrcut (1985-2004) $R^2=.962$ SD= .220966 DW= 1.67 RO=0.789
- (35) $DOT(UR.K)=28.3421-3.33813*(DOT(IF.K))$
 (3.78) (-5.21)
 OLS (1985-2004) $R^2=.579$ SD= 26.3415 DW= 1.606
- (36) $UR.C=1.69243+.018346*(W.C/PGDP.C)$
 (15.41) (13.38)
 OLS (1988-2004) $R^2=.918$ SD= .191447 DW= 1.364
- (37) $DOT(W.I.J)=5.13487+.354384*(DOT(PGDP.J))-1.00181*(UR.J)$
 (5.71) (2.55) (-4.03)
 OLS (1980-2004) $R^2=.842$ SD= .750673 DW= 1.404

- (38) $DOT(WI.K)=12.0420+.755083*(DOT(PGDP.K))-1.43904*(UR.K)$
 (3.35) (3.55) (-1.58)
 OLS (1980-2004) $R^2=.346$ SD= 5.58677 DW= 1.457
- (39) $DOT(W.C)=9.16783+.842442*(DOT(PGDP.C))$
 (7.23) (4.93)
 OLS (1980-2004) $R^2=.493$ SD= 4.49974 DW= 1.406
- (40) $WPI.J=-7.65838+52.2268*(WI.J*L.J/GDP.J)+.101761*(CU.J)+.002673*(PUMJ *RATEJ)$
 (-.55) (4.98) (1.44) (17.32)
 OLS (1980-2004) $R^2=.961$ SD= 2.06888 DW= 1.356
- (41) $PGDP.K=-80.70+171.238*(WI.K*L.K/GDP.K)+.7198*(CU.K)+.000423*(PUMK *RATEK)$
 (-3.22) (12.06) (3.12) (6.87)
 OLS (1986-2004) $R^2=.989$ SD= 2.24424 DW= 1.668
- (42) $PGDP.C=308+.008*(W.C*N.C/GDP.C)+3.15*(CU.C)+.039*(PUMC*RATEC)+ 10.3*(D97)$
 (-2.52) (13.67) (2.60) (9.02) (3.08)
 OLS (1980-2004) $R^2=.989$ SD= 3.12975 DW= 1.315
- (43) $PGDP.J=88.3640+.113001*(WPI.J)$
 (16.40) (2.57)
 Orrcut (1972-2004) $R^2=.983$ SD= 1.33068 DW= .958 RO=0.879
- (44) $I.J=-1.37591+.0000122*(GDP.J)-.761912*(M.J/PGDP.J)+.685254*(DR.J)$
 (-1.04) (2.30) (-2.66) (8.70)
 OLS (1980-2004) $R^2=.936$ SD= .435141 DW= 1.136
- (45) $LOG(I.K)=-2.57361+.836299*LOG(GDP.K)-.809681*LOG(M.K/PGDP.K)$
 (-.65) (1.77) (-2.77)
 OLS (1984-2004) $R^2=.542$ SD= .206915 DW= .869
- (46) $I.C=-.827161+.000498*(GDP.C)-.002788*(M.C)$
 (-.31) (3.51) (-3.90)
 OLS (1980-2004) $R^2=.576$ SD= 1.97595 DW= .841
- (47) $LOG(PUEJ)=-1.196+.971*LOG(PGDP.J)+.595*LOG(PUEC.J)-.282*LOG(RATEJ)$
 (-1.23) (7.92) (5.03) (-3.42)
 OLS (1994-2004) $R^2=.977$ SD= .013305 DW= 1.27
- (48) $LOG(PUEK)=10.66+.160444*(LOG(PGDP.K))-956*(LOG(RATEK))-194*(D0204)$
 (22.70) (2.78) (-11.43) (-4.40)
 OLS (1984-2004) $R^2=.932$ SD= .060413 DW= 1.921

- (49) $\text{LOG(PUEC)} = .788 + .229 * \text{LOG(PGDP.C)} + .686 * \text{LOG(PUEC.C)} - .140 * \text{LOG(RATEC)}$
 (1.79) (3.32) (6.54) (-2.50)
 OLS (1980-2004) $R^2 = .917$ SD= .039335 DW= 1.093
- (50) $\text{EXMN.J} = \text{EXMNK.J} + \text{EXMNC.J} + \text{EXMNROW.J}$
- (51) $\text{EXMNK.J} = \text{EXMK.J} * \text{PUEJ}/100$
- (52) $\text{OG(EXMK.J)} = 9 + .550 * (\text{LOG(GDP.K)}) - .792 * (\text{LOG(PUEJ/(PGDP.K/RATEK)})) + .3 * (\text{D04})$
 (3.69) (7.31) (-2.81) (2.27)
 OLS (1985-2004) $R^2 = .834$ SD= .128719 DW= 1.263
- (53) $\text{EXMNC.J} = \text{EXMC.J} * \text{PUEJ}/100$
- (54) $\text{LOG(EXMC.J)} = -2.26 + 1.220 * (\text{LOG(GDP.C)}) - .587 * (\text{LOG(PUEJ/(PGDP.C/RATEC)}))$
 (-2.41) (14.37) (-2.42)
 $-.380 * (\text{D90}) - .267 * (\text{D9899}) + .472 * (\text{D04})$
 (-2.53) (-2.46) (2.86)
 OLS (1987-2004) $R^2 = .956$ SD= .138785 DW= 1.426
- (55) $\text{EXMNROW.J} = 283679.1 + .061483 * (\text{WTRADE})$
 (12.39) (3.73)
 OLS (1992-2004) $R^2 = .518$ SD= 22,613.1 DW= 1.423
- (56) $\text{EXMN.K} = \text{EXMNJ.K} + \text{EXMNC.K} + \text{EXMNROW.K}$
- (57) $\text{EXMNJ.K} = \text{EXMJ.K} * \text{PUEK}/100$
- (58) $\text{OG(EXMJ.K)} = -29.0089 + 3.38378 * \text{LOG(GDP.J)} - 1.20884 * \text{LOG(PUEK/(PGDP.J/RATEJ))}$
 (-2.52) (4.17) (-5.92)
 OLS (1992-2004) $R^2 = .965$ SD= .072027 DW= 1.675
- (59) $\text{EXMNC.K} = \text{EXMC.K} * \text{PUEK}/100$
- (60) $\text{LOG(EXMC.K)} = -24.5749 + 3.01943 * \text{LOG(GDP.C)}$
 (-24.15) (33.34)
 OLS (1992-2004) $R^2 = .989$ SD= .105457 DW= 1.791
- (61) $\text{EXMNROW.K} = 36498.5 + .057551 * (\text{WTRADE})$
 (2.56) (7.93)
 OLS (1990-2004) $R^2 = .961$ SD= 4,997.07 DW= 1.812 RO=0.798
- (62) $\text{EXMN.C} = \text{EXMNJ.C} + \text{EXMNK.C} + \text{EXMNROW.C}$
- (63) $\text{EXMNJ.C} = \text{EXMJ.C} * \text{PUEC}/100$
- (64) $\text{LOG(EXMJ.C)} = -129.1 + 11.045 * \text{LOG(GDP.J)} - 1.138 * \text{LOG(PUEC/(PGDP.J/RATEJ))}$
 (-14.40) (15.44) (-3.06)

- OLS (1991-2004) $R^2=.949$ SD= .131238 DW= 1.464
- (65) $EXMNC.C=EXMK.C*PUEC/100$
- (66) $LOG(EXMK.C)=-25.2+3.027*LOG(GDP.K)-.792*LOG(PUEC/(PGDP.K/RATEK))$
 (-14.30) (27.53) (-3.49)
- OLS (1991-2004) $R^2=.984$ SD= .097085 DW= 1.381
- (67) $EXMNROW.C=-234823.4+.313287*(WTRADE)$
 (-8.17) (15.53)
- OLS (1993-2004) $R^2=.956$ SD= 25,612.2 DW= 1.473
- (68) $EXMN.ROW=EXMNJ.ROW+EXMNC.ROW+EXMNC.ROW$
- (69) $EXMNJ.ROW=EXMJ.ROW*PUEW/100$
- (70) $LOG(EXMJ.ROW)=-28.5+3.290*LOG(GDP.J)-.456*LOG(PUEW/(PGDP.J/RATEJ))$
 (-5.31) (8.49) (-2.69)
- OLS (1991-2004) $R^2=.891$ SD= .062353 DW= 1.522
- (71) $EXMNC.ROW=EXMK.ROW*PUEW/100$
- (72) $LOG(EXMK.ROW)=1.88+1.119*LOG(GDP.K)-.735*LOG(PUEW/(PGDP.K/RATEK))$
 (1.44) (23.43) (-6.24)
- OLS (1987-2004) $R^2=.987$ SD= .052319 DW= 1.713
- (73) $EXMNC.ROW=EXMC.ROW*PUEW/100$
- (74) $LOG(EXMC.ROW)=-7.3+1.772*LOG(GDP.C)-.402*LOG(PUEW/(PGDP.C/RATEC))$
 (-2.35) (7.00) (-1.80)
- Orrcut (1985-2004) $R^2=.976$ SD= .092792 DW= 1.44 RO=0.82
- (75) $IMMN.J=EXMNJ.K+EXMNJ.C+EXMNJ.ROW$
- (76) $IMMN.K=EXMNC.J+EXMNC.K+EXMNC.ROW$
- (77) $IMMN.C=EXMNJ.J+EXMNJ.K+EXMNJ.ROW$
- (78) $IMMN.ROW=EXMNROW.J+EXMNROW.K+EXMNROW.C$
- (79) $WTRADE=EXMN.J+EXMN.K+EXMN.C+EXMN.ROW$
- (80) $PUMJ=EXMNJ.K/IMMN.J*PUEK+EXMNJ.C/IMMN.J*PUEC+EXMNJ.ROW/IMMN.J*PUEW$
- (81) $PUMK=EXMNC.J/IMMN.K*PUEJ+EXMNC.K/IMMN.K*PUEK+EXMNC.ROW/IMMN.K*PUEW$
- (82) $PUMC=EXMNJ.J/IMMN.C*PUEJ+EXMNJ.K/IMMN.C*PUEK+EXMNJ.ROW/IMMN.C*PUEW$

List of Variables

CG	Government Consumption(2000 price, each currency)	
CP	Private Consumption(2000 price, each currency)	
CU	Capacity Utilization	percent
D	Depreciation Rate	percent
DISC	Statistical Discrepancy + Stock Inventory(2000 price each currency)	
EX	Export of Goods and Services(2000 price, each currency)	
EXMN EXM	Export of Goods (nominal price, dollar base) Export of Goods (2000 price, dollar base)	million dollar 2000 price, dollar
GDP	Gross Domestic Product (2000 price, each currency)	
I	Interest Rate	percent
IF	Gross Domestic Investment	
IM IMN	Import of Goods and Services (2000 price, each currency) Import of Goods and Services (nominal price, each currency)	
IMMN	Import of Goods (nominal price, dollar base)	million dollar
K	Capital Stock (2000 price, each currency)	
N	Number of Workers	ten thousand person
PDD	Domestic Demand Deflator	2000=100
PEX	Deflator of Export of Goods and Services	2000=100
PGDP	GDP Deflator	2000=100
PIM	Deflator of Import of Goods and Services	2000=100
PUE	Unit Price Index of Export Goods	2000=100
PUEC	Unit CompetePrice Index of Export Goods	2000=100
PUM	Unit Price of Import Goods	2000=100
RATE	Exchange Rate	each currency/dollar
UR	Unemployment Rate	percent
W	Average Wage	yuan
WI	Wage Index	2000=100
WPI	Wholesale Price Index	2000=100
WT	World Trade	million dollar

J,K,C,ROW indicate Japan, Korea, China and rest of the World respectively.

Some variables of EX, EXMN indicate their trade directions. For example, EXK.J indicates export of goods from Japan to Korea.

Each currency's unit of the macro and trade variables is billion yen, billion won and 100 million yuan.